Issue CoMoMent

2025. 9. 16

엔터테인먼트

8 월 음반 수출 동향

엔터/레저
Analyst **김민영**
02. 6454-4884
minyoung.kim02@meritz.co.kr

8월 음반 수출액 데이터

- 전체: 4,383만달러 (+84.7% YoY, +63.4% MoM)

- 미국: 673만달러 (+82.7% YoY, -0.8% MoM)

- 일본: 771만달러 (+27.3% YoY, +35.3% MoM)

- 중화권(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)
  : 1,892만 달러 (+85.7% YoY, +1,131% MoM)

- 동남아시아(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)
  : 32만 달러(-57.2% YoY, -27.6% MoM)

- 유럽 및 영어권(캐나다, 프랑스, 영국, 독일, 호주, 네덜란드)
  : 314만 달러 (+67.0% YoY, -8.9% MoM)

→ 국가 비중: 중국 43.2%, 일본 17.6%, 미국 15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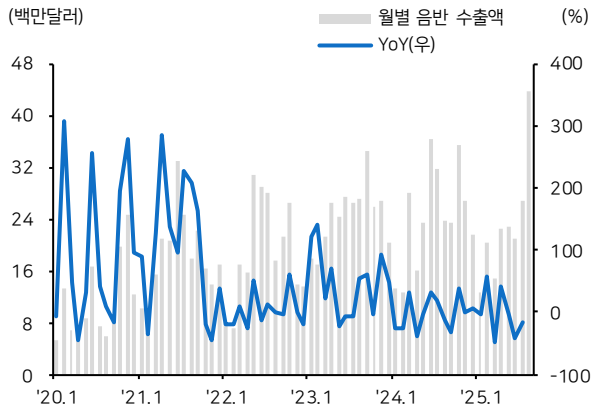
수출 동향

- 8월 글로벌 음반 수출액은 4,383만 달러(+84.7% YoY, +63.4% MoM)를 기록하여 이례적인 수치 기록. 8월 스트레이키즈(정규), 아이브(미니), 트와이스, 보이넥스트도어 일본 음반 뿐만 아니라, 9/1일 트레저, NCT WISH, 제로베이스원 등 주요 아티스트 컴백이 다수 진행된 영향으로 추정

- 특히, 8월 중화권 내 대만 음반 수출액은 1,032만 달러로, 평균 200만 달러 약 5배 증가, 중국 음반 수출액 역시 24년 7월 이후로 최대치인 806만 달러를 기록. 대형 아티스트 컴백 및 블랙핑크 중국 팝업스토어 진행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, 대만의 경우 구매 대행, 우회 물량 등 가능성 유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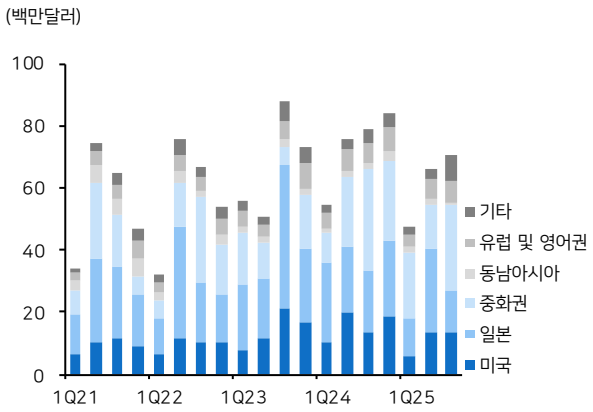
- 8월 음반 수출액 급증하면서서 1~8월 누적 음반 수출액은 2024년 누적 음반 수출액(1.85억 달러)와 유사한 1.84억 달러 기록. 9/1일자 컴백 아티스트가 3팀 이상 있었으며, 이례적인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9월 수출액 확인 필요

그림1 월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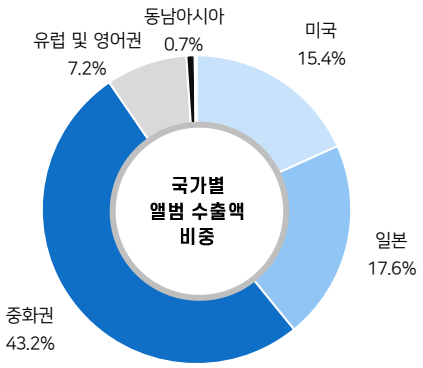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지역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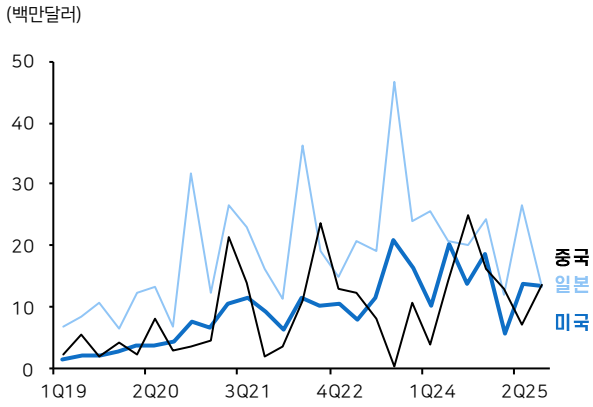
주: 3분기는 7~8월 누적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8월 기준 음반 수출액 비중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분기별 미국, 일본, 중국 수출액 추이



주: 3분기는 7~8월 누적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